

## 구조조정 거론 9개 건설사 무너지면

# 협력사 3200곳 1조 피해

### 전문건설협회, 연쇄도산 방지 대책 건의

채권은행들의 건설사에 대한 신용 위험평가가 한창인 가운데 구조조정 대상으로 거론되고 있는 100대 건설사 9곳이 무너질 경우 3200여개 하도급업체가 1조원에 유판하는 피해를 입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9일 대한전문건설협회 광주지회(회장 장호직)에 따르면 전문건설협회가 최근 대형 건설사들의 부도 사례를 분석해 향후 구조조정으로 발생할 하도급 전문업체의 피해를 예측한 결과, 시공능력 100대 건설사 중 1곳이 부도나면 평균 202개 협력업체가 공사대금 미지급 등으로 1230억원의 피해를 보고 이 중 76개 업체가 줄도산할 것으로 전망됐다.

100대 건설사 중 10%인 10곳이 부

도가 나면 2020개 협력업체에서 피해 액이 1조2300억원에 달하고, 760개 협력사의 부도로 이어질 것이라는 계산이다.

금융권의 평가 대상인 300대 건설사로 확대해 이 중 10%(30곳)가 구조조정된다면 협력업체 3548개사에서 2조1599억원의 피해와 1335곳의 줄도산이, 20%인 60개 건설사가 부도 나면 7094개 협력사에서 4조3198억원의 피해와 2669개 업체의 연쇄 부도가 예측됐다.

또 최근 금융권 주변에서 100대 건설사 중 구조조정 대상으로 오르내리고 있는 B사, S사, L사, J사, I사 등 9개 업체가 실제로 퇴출된다면 협력업체 3213곳에서 9396억원의 피해

를 블 것으로 추정됐다.

현재 거론되는 구조조정 대상 가운데 광주·전남업체는 없지만 협력업체들은 상당수에서 피해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같은 예측에 따라 전문건설협회는 최근 청와대와 국토해양부·금융감독원·금융위원회·전국은행연합회 등에 '건설업계 구조조정에 따른 선의의 하도급 전문건설업체 연쇄도산 피해 방지'를 위한 건의서'를 전달했다.

전문건설협회는 건의서에서 "부실한 원도급업체의 구조조정으로 건설한 하도급업체가 아무런 잘못도 없이 부도로 이어져서는 안된다"며 "연쇄 부도 되지 않도록 정책적 대책이 우선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협회는 하도급업체들의 충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정부와 금융당국에

를 블 것으로 추정됐다.

▲공사대금의 조속한 지급 ▲신용한도 증액과 대출 만기 연장 ▲이을 우선 할인 ▲부도현장의 하도급 시공권 계승 ▲세금납부 연장·유예 등 대책을 강구해줄 것을 건의했다.

한편 금융권에 따르면 시공능력 상위 300위권 건설사들에 대한 신용위험평가를 진행 중인 채권은행들은 이달 초 1차 평가를 끝냈고, 오는 20일까지 2차 평가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A, B, C, D 등 4개 등급으로 매겨지는 신용위험 평가 결과 C(워크아웃)나 D(법정관리)등급을 받는 업체들도 대폭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나오고 있다. 구조조정 명단은 금융당국에 대한 보고와 2주일간의 이의제기 절차를 거쳐 7월 초에 확정될 전망이다.

/박정목기자 jwpark@kwangju.co.kr

## 광주 고용시장 '숨통'

### 5월 취업자수 68만명… 전년보다 4.9% 증가

#### 전남은 2.4% 감소

5월 광주지역 취업자 수가 크게 늘고 고용률이 상승한 반면 실업률은 떨어져 고용시장이 원연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9일 호남지방통계청이 발표한 '2010년 5월 광주·전남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광주의 취업자는 68만 명으로 전년 같은 달보다 3만2000명(4.9%) 증가했으며 고용률은 58.5%

로 전년 같은 달보다 1.9%포인트 상승했다.

가사나 통학 등으로 노동시장에 참여하지 않는 비경제 활동인구도 45만 8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1만4000명(2.4%) 감소했고 고용률은 63.9%로 1.6%포인트 하락했다.

실업자는 1만3000명으로 전년 같은 달보다 1000명(0.9%) 감소했고 실업률은 1.4%로 0.1%포인트 하락한 것으로 집계됐다.

취업 시간대별로 36시간 미만 취업자는 15만4000명으로 전년 같은 달보다 3만6000명(30.4%) 증가했지만 36시간 이상 취업자가 74만6000명으로 6만명(7.4%) 감소했다.

취업시간대별로는 36시간 미만 취

업자가 10만2000명으로 전년 같은 달보다 1만6000명(17.9%) 증가했고 36시간 이상 취업자도 56만6000명으로 1만4000명(2.5%) 증가했다.

반면 전남의 취업자는 91만1000명으로 전년 같은 달보다 2만3000명(2.4%) 감소했고 고용률은 63.9%로 1.6%포인트 하락했다.

실업자는 1만3000명으로 전년 같은 달보다 1000명(0.9%) 감소했고 실업률은 1.4%로 0.1%포인트 하락한 것으로 집계됐다.

취업 시간대별로 36시간 미만 취업자는 15만4000명으로 전년 같은 달보다 3만6000명(30.4%) 증가했지만 36시간 이상 취업자가 74만6000명으로 6만명(7.4%) 감소했다.

취업시간대별로는 36시간 미만 취

업률은 1248.70원에 거래를 마쳤다. 원·달러 환율이 고공행진을 계속하면서 국내 금값을 부수진 것으로 분석됐다.

또 뉴욕에서 8월물 금값은 지난 8일 전날보다 23.10 달러(1.9%) 오른 1240.80 달러를 기록해 역시 국내 금값 상승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금값에 따른 영향으로 8월물 금값은 11139만(3370원) 건물 1442평 경매 감정가 18억 원에 6억 원이 더해져 243 광주·전남 고용률은 58.5%

로 전년 같은 달보다 1.9%포인트 상승했다.

가사나 통학 등으로 노동시장에 참여하지 않는 비경제 활동인구도 45만 8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1만4000명(2.4%) 감소했고 고용률은 63.9%로 1.6%포인트 하락했다.

실업자는 1만3000명으로 전년 같은 달보다 1000명(0.9%) 감소했고 실업률은 1.4%로 0.1%포인트 하락한 것으로 집계됐다.

취업 시간대별로 36시간 미만 취업자는 15만4000명으로 전년 같은 달보다 3만6000명(30.4%) 증가했지만 36시간 이상 취업자가 74만6000명으로 6만명(7.4%) 감소했다.

취업시간대별로는 36시간 미만 취

업률은 1248.70원에 거래를 마쳤다. 원·달러 환율이 고공행진을 계속하면서 국내 금값을 부수진 것으로 분석됐다.

또 뉴욕에서 8월물 금값은 지난 8일 전날보다 23.10 달러(1.9%) 오른 1240.80 달러를 기록해 역시 국내 금값 상승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금값에 따른 영향으로 8월물 금값은 11139만(3370원) 건물 1442평 경매 감정가 18억 원에 6억 원이 더해져 243 광주·전남 고용률은 58.5%

로 전년 같은 달보다 1.9%포인트 상승했다.

가사나 통학 등으로 노동시장에 참여하지 않는 비경제 활동인구도 45만 8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1만4000명(2.4%) 감소했고 고용률은 63.9%로 1.6%포인트 하락했다.

실업자는 1만3000명으로 전년 같은 달보다 1000명(0.9%) 감소했고 실업률은 1.4%로 0.1%포인트 하락한 것으로 집계됐다.

취업 시간대별로 36시간 미만 취업자는 15만4000명으로 전년 같은 달보다 3만6000명(30.4%) 증가했지만 36시간 이상 취업자가 74만6000명으로 6만명(7.4%) 감소했다.

취업시간대별로는 36시간 미만 취

## 금 한돈 20만원 사상 최고

원·달러 환율의 고공행진과 국제 금시세의 급등으로 국내 금값이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9일 한국금거래소에 따르면 전날 순금(24K) 한돈(3.75g)의 도매시세는 19만6000원, 소매시세는 20만 8000원을 기록했다.

이는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던 작년 3월 6일 19만3600원(도매기준)보다

2400원 오른 것이다며 작년 6월 8일에 비해서는 21.2%나 뛴 것이다.

이에 따라 시중에서 순금 1돈짜리 물반지를 사려면 21만~22만원 정도는 부담해야 하는 혼돈이다.

국내 금값이 이처럼 급등한 것은 원·달러 환율과 국제 금시세가 급등 했기 때문이다.

9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달러화에

대한 원화 환율은 전날보다 15.3원 오른 1248.70원에 거래를 마쳤다. 원·달러 환율이 고공행진을 계속하면서 국내 금값을 부수진 것으로 분석됐다.

또 뉴욕에서 8월물 금값은 지난 8일 전날보다 23.10 달러(1.9%) 오른 1240.80 달러를 기록해 역시 국내 금값 상승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금값에 따른 영향으로 8월물 금값은 11139만(3370원) 건물 1442평 경매 감정가 18억 원에 6억 원이 더해져 243 광주·전남 고용률은 58.5%

로 전년 같은 달보다 1.9%포인트 상승했다.

가사나 통학 등으로 노동시장에 참여하지 않는 비경제 활동인구도 45만 8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1만4000명(2.4%) 감소했고 고용률은 63.9%로 1.6%포인트 하락했다.

실업자는 1만3000명으로 전년 같은 달보다 1000명(0.9%) 감소했고 실업률은 1.4%로 0.1%포인트 하락한 것으로 집계됐다.

취업 시간대별로 36시간 미만 취업자는 15만4000명으로 전년 같은 달보다 3만6000명(30.4%) 증가했지만 36시간 이상 취업자가 74만6000명으로 6만명(7.4%) 감소했다.

취업시간대별로는 36시간 미만 취

업률은 1248.70원에 거래를 마쳤다. 원·달러 환율이 고공행진을 계속하면서 국내 금값을 부수진 것으로 분석됐다.

또 뉴욕에서 8월물 금값은 지난 8일 전날보다 23.10 달러(1.9%) 오른 1240.80 달러를 기록해 역시 국내 금값 상승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금값에 따른 영향으로 8월물 금값은 11139만(3370원) 건물 1442평 경매 감정가 18억 원에 6억 원이 더해져 243 광주·전남 고용률은 58.5%

로 전년 같은 달보다 1.9%포인트 상승했다.

가사나 통학 등으로 노동시장에 참여하지 않는 비경제 활동인구도 45만 8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1만4000명(2.4%) 감소했고 고용률은 63.9%로 1.6%포인트 하락했다.

실업자는 1만3000명으로 전년 같은 달보다 1000명(0.9%) 감소했고 실업률은 1.4%로 0.1%포인트 하락한 것으로 집계됐다.

취업 시간대별로 36시간 미만 취업자는 15만4000명으로 전년 같은 달보다 3만6000명(30.4%) 증가했지만 36시간 이상 취업자가 74만6000명으로 6만명(7.4%) 감소했다.

취업시간대별로는 36시간 미만 취

### 모델 목욕탕 및 각종 상가건물

을 빨리 팔고 싶으시거나 임대를 내놓고 싶으시면 저희 부동산으로 오십시오!

저희 부동산은 오래도록 광주시내권 및 시외손님으로 모델 목욕탕 및 각종 상

가건물을 사실분과 얻으실 분 손님을 많이 확보하고 있습니다.

사장님께서 소유하고 계신 건물을 팔거나 임대를

내놓고 싶으시면 저희 부동산에서 빠르고 정확하게 일해 드리겠습니다.

다면, 사장님께서 저희 부동산에 내놓으신 소중한 건물을 철저하게 비밀보장하여 조용히 팔아드리겠습니다.

구조조정 거론 9개 건설사 무너지면 협력사 3200곳 1조 피해

받습니다. 원하시는 물건 찾아 드리며, 경리하실 물건 팔아드려겠습니다.

★ 아무데나 전화 주십시오★

### 주택·아파트·임대

· 아파트·연세동·현대 201㎡ 대출 1억 원 가능 1억 5천

· 주택·회현·현대 101㎡ 대출 2400만 원

· 금남로 5가 사거리 총 29평 건물 2층, 3층, 4층을 분리하거나 합하여 병·의원 임대, 조건은 협의함.

### 건물매매

· 법원 건물 1010㎡(305평) 건물 2996㎡(906평) 공시지가 27억 원 매도 41억

· 동구 6차선도로와 3차선 도로 코너 대지 1948㎡(598평) 건물 2109㎡(637평) 공시지가 27억 3천 매도 25억

· 신안동 상업지 310㎡(94평) 공시지가 3억 원 매도 2억 4천

· 마륵동 주거지, 대지 574㎡(174평) 공시지가 5억 원 매도 5억 5천

· 대지, 두암동 소방도로 접 275㎡(83평) 1억 5천

· 충장로 5가 3층 건물 133평